

이병도의 행적과 그의 역사관

김삼웅(전 독립기념관장)

차 례

1. 금제의 성역 우상화된 역사학자
2. 총독부 ‘조선반도사’ 편찬에 참여
3. 해방 후 한때 ‘문제제기’됐으나 승승장구
4. 국정농단의 김창룡 비문 쓰다
5. 이완용 관뚜껑 소각한 실증사학자
6. 사육신 명단 바꿔치기
7. ‘민족’과는 먼 식민지 역사관

1. 금제의 성역 우상화된 역사학자

한국사회에 하나의 오래된 성역이 존재한다. 워낙 성채가 견고하고 수비병들이 많아서 함부로 접근이 어렵다. 민주화의 진척으로 독재자들의 성채가 하나 씩 무너지거나 뚫리는데 비해 이 성채만은 여전히 난공불락이다. 덤비는 병사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강고한 성채가 유지된 것은 그만큼 현재적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영향력’이 형이상학적이어서 일반인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고 전문가들의 다수는 거대한 성채의 카르텔에 편입되었다. 함부로 도전했다가는 그 세계에서 입지(立地)를 찾기가 쉽지 않다.

‘두계 이병도 박사’라는 고유명사는 지난 30년 동안(1976년 9월 현재 - 필자

주) 한국사학의 '대명사'요 국사정책 나아가서 국학의 총수라는 '무관의 제왕'으로 통달한 '이름씨'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박사의 민족사관(二 사학)과 혼도로 성장한 문하생들은 노박사의 사학관과 학문권위를 비호하는 첨병마냥 기라성처럼 한 국사학계의 저변에 갈려 돌아간다.¹⁾

임승국의 이 글이 발표된 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황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변화라면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에『친일파 인명사전』을 발행하면서 그의 친일행적이 어느 정도 적시되었다는 점이다. 그렇거나 말거나 추종자들은 여전히 그를 한국사학의 거봉으로 태두로 우상화한다.

그의 아호를 따서 제정된 '두계학술상'은 제1회 이성무로부터 허흥식·홍승기·박용운(공동수상)·민현구·이수건·정두희·권영민·김리나·권용덕 등 사학계뿐만 아니라 인문계 쪽으로까지 확대되어 시상한다.

한국사학계에서 이병도가 차지하는 위상과 영향력은 추종을 불허한다. 진단학회가 펴낸『역사가의 유향』에 보면, 사학계를 주름잡는 40여 명의 학자들이 그와의 관계(친분)와 학문을 칭송하고 추앙한다. 서문의 한 대목 - “이 추모문집은 우리 현대사학의 개척자요, 일세(一世)의 석학이요, 만인의 사장(師丈)이던 두계선생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고, 앞으로 두계선생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여러 가지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값진 구실을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 민현구.”²⁾

서문에서는 ‘여러가지 사실’들을 알려준다고 했는데 그의 친일행적이나 김창룡 비문 쓴 일이나 이완용 관뚜껑 소각사건 그리고 박정희의 군사쿠데타 미화 사실 등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식민사관을 바탕으로 하는 역사관과 많은 저서를 한껏 칭송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두계(斗溪) 이병도(李丙燾)는 1896년 9월 20일 경기도 용인에서 조선시대 서인과 노론의 대표적인 가문인 우봉이씨 이봉구의 아들로 태어났다.

1909년 3월 한성 보광학교에서 수학한 후 1910년 3월 사립 중등학교를 졸업했다. 1912년 3월 일본인이 세운 불교고등학교 예비과를 수료했고, 다음 달 보성전문학교 법률학과에 입학해 1915년 3월 졸업했다. 졸업하던 해 4월 일본으로 건너가 다음 해 7월까지 와세다(早稻田)대학 고등예과 문과를 수료했고, 두 달 후인 9월 와세다대학 문학부 사학급사회학과(史學及社會學科)에 들어가 1919년 7월 졸업했다.

처음에는 서양사를 전공하고자 했으나, 당시 일본사의 권위자였던 요시다

1) 임승국, 「이병도 저 한국고대사를 논박한다」, 『자유』, 통권 제54호, 1976.

2) 진단학회 편, 『역사가의 유향 - 두계 이병도선생 추념문집』, 서문. 일조각, 1991.

도오고(吉田東伍))와 쓰다 소우기치(津田 左右吉)의 영향을 받아 조선사연구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후 귀국해 1919년 10월부터 1925년 8월까지 경성 중앙고등보통학교 교원을 지냈다. 1920년 7월 김억·나혜석·염상섭 등과 잡지『폐허』를 창간한 후 동인으로 활동했고, 1922년 12월에는 염상섭·오상순 등과 ‘문인회(文人會)’를 발기해 창립했다.

이병도는 대학 3학년 때 만난 와세다대학 강사 쓰다 소우키지와 동경대 조선사 교수 이케우치 히로시로부터 역사 공부에 많은 도움과 영향을 받았다. 그는 두 사람을 통해 실증사학을 익힐 수 있었고, 이케우치를 통해 실록을 처음 접하기도 했다. 이 두 사람은 일본 역사학계의 임나일본부설 연구에 많은 영향을 끼친 연구자들이었다. 이처럼 이병도는 일본인 학자의 자극과 영향을 받으면서 독학으로 한국사를 공부해 3·1운동이 일어나던 해에 학부 졸업논문으로「고구려 대청·당 항쟁사연구」를 제출했다.³⁾

이병도가 일본유학 시절에 실증사학과 임나일본부설을 연구하는 일인 교수로부터 받은 학문적 수혜는 그의 연구생애에 큰 밑거름이 되었던 것 같다.

2. 총독부 ‘조선반도사’ 편찬에 참여

일제는 1919년 3·1항쟁이라는 조선인들의 거센 저항을 겪고 형식적으로나마 무단정치 대신 문화정치를 표방하고 나섰다. 새로 부임한 사이토 총독은 조선 정신의 말살을 기도하면서 ‘조선사편찬위원회(조편위)’의 설치를 서둘렀다. 1922년 12월 훈령 제64호를 통해 설치 규정을 재정하고 곧이어 ‘조편위’가 구성되었다.

사이토는 ‘조편위’의 설치에 앞서 교육시책을 발표했다. 그것은 “① 먼저 조선 사람들이 자신의 일·역사·전통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 민족혼·민족문화를 상실하게 하고, ② 그들의 조상과 선인들의 무위 무능과 악행을 들추어내 과장하여 가르침으로써 조선의 청소년들이 그 부조를 경멸하는 것을 하나의 기풍으로 만들고, ③ 그 결과 조선의 청소년들이 자국의 모든 인물과 사적에 관하여 부정적인 지식을 얻어 실망과 허무감에 빠지게 될 것이니 그때에 일본서적·일본 인물·일본 문화를 소개하면 동화의 효과가 지대할 것이다. 이것이 제국 일본이 조선인을 반(半)일본인으로 만드는 요결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조선사 편찬 작업이 바로 이러한 일제의 의도를 실현시키기 위한 일환이었음

3) 김일수, 「이병도와 김석형」, 『남과 북을 만든 라이벌』, 185쪽, 역사비평사, 2008.

은 물론이다.

이렇게 시작된 일제의 조선사 왜곡과 날조는 결코 일부 사학자들만의 작업은 아니었다. 그들이 조선사 편찬 작업에 어느 정도로 비중을 두고 열성적으로 임했는지는 ‘조편위’에 총독이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조선총독부의 제2인자인 정무총감이 조편위 위원장을 맡는가 하면, 총독부 주요 인물과 일본의 명성있는 사학자들을 위원으로 끌어들인 데서도 잘 나타난다.

총독부의 막강한 지원을 받으며 출범한 ‘조편위’는 1923년 1월부터 총독과 정무총감이 배석한 가운데 조선사를 왜곡하는 ‘위서’ 만들기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당시 일본의 대표적인 어용사학자들도 지도고문으로 추가되었다. 조선사의 말살·왜곡 작업은 애초 총독부 취조국에서 관장했던 것인데, 이를 1915년 중추원으로 이관하여 편찬과를 설치하고『조선반도사』의 편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이병도는 귀국 후 중앙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이케우치의 주선으로(이완용 추천설도 있다) ‘조편위’의 촉탁으로 들어갔다. ‘조편위’에는 이나바 이와키치가 수석 수사관(修史官)으로 사업을 주도하고, 경성제대의 이마니시류 교수가 촉탁으로 근무하였다.

이나바는 1909년부터 7년간 만철(滿鐵)의 역사지리조사실에서 만주와 조선의 역사를 연구했고, 한국사와 관련해서는『조선문화사연구』라는 저서를 쓰기도 했다. 그는 만선불가분론을 주장한 만선사관의 대표 인물이었다. 또 이마니시는 단군조선을 신화로 격하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들 일본 역사학자들은 일제의 정치적인 요구와 학문적인 관심으로 한국과 만주에 걸친 역사지리 조사사업에 뛰어들었고, 한국사의 타율성론과 만선사관, 정체성론을 앞세워 한국사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병도는 일본인 역사학자가 주도하고 있던 조선사편수회에서 이마니시의 수사관보가 되어『조선사』제1, 2편(통일신라시대), 3편(고려시대) 편집 등에 참여했다.⁴⁾

이병도는 조선총독부가 조선사왜곡을 위해 설치한 조선사편수회에 참여한 것을 전혀 반성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당시 한국인으로서 국사에 뜻을 둔 이는 이능화·최남선·이중화·안자산·문일평·황의돈·권덕규 등 제씨였다. 나는 이들과의 교류에서 자극을 받기도 했으나 내게 직접 간접으로 큰 격려와 영향을 준 것은 일본 와세다대학의 츠다 박사와 동경제대의 이케우찌 박사였다. 이분들은 일본 사학계의 권위로서 특히 츠다 박사는 내 은사의 한 분이요 사학뿐 아니라 중국사상사의 대가이기도 해서 재학시절

4) 앞의 책, 186쪽.

부터 지도를 받은 바 많았다.

이깨우씨 박사에게는 직접 강의를 받지 않았지만 당시 한국사연구에 최첨단을 걷던 분이였다. 이 두 분이 나를 사랑해서 그들의 역작이 실린『만선지리사보고(滿鮮地理史報告)』와『동방학보(東方學報)』등을 보내 주어서 거기서 배운 바가 적지 않았다.

또 때마침 중추원 안에 조선사편수회가 설립되었는데, 나는 이깨우씨 박사의 추천으로 몇해동안 촉탁으로 근무하게 되었다.⁵⁾

이병도는 ‘조편회’에 들어가 활동한 것을 “몇 해 동안 촉탁으로 근무”했다고 딱 한 줄로 서술했지만, 이 기관은 한국병탄 초기 일제가 엄청난 예산과 막대한 인력을 투입하여 조선사를 뿌리에서부터 왜곡한 총독부의 최우선 사업이었다. 뉴라이트계열 역사학자들의 역사인식은 상당 부문 이때 편찬된『조선반도사』에 의존한다.

일제의 조선병합 목적은 한마디로 이 지구상에서 조선인을 지워버리기 위해 뺏속까지 일본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들처럼 천황을 신으로 모시고 신사를 150군데나 지어놓고 참배시켰다. 그래서 한일병합 이후 가장 먼저 모든 고서를 압수해 불태워버렸다. 단군을 없애고 그 자리에 천황을 세운 것이다. 그리고 조선사를 뜯어고치는 작업을 개시했다. 이완용의 조카인 이병도는 그의 도움을 받아 1925년 조선사편수회에 들어가 ‘고조선 2000년사’를 말살하는 작업에 20년간 종사했다.⁶⁾

조선총독부는 총독부 훈령으로 되어 있던 ‘조선사편찬위원회’를 ‘조선사편수회’로 고치고 일왕의 칙령으로 설치 근거의 격을 높이면서 조선인 사학자들도 끌어들었다. 1925년 6월에는 일왕 칙령 제218호로 조선사편수회 관제를 제정·공포하여 조선총독이 직할하는 기관으로 승격시켰다. 편수회의 고문에 이완용·권중현은 그대로 유임시키고 박영효(후작)와 이윤용(남작) 등 친일 거물들을 추가로 참여시켰으며, 일본인 거물들과 어용학자 다수를 참여시켰다.

편수회의 총책임은 정무총감이 맡아 지휘하였고 참가자들에게는 각종 이권과 특혜를 주었다. 일제가 조선사 왜곡에 얼마만큼 열정을 쏟았는가를 살필 수 있는 대목이다. 일제가 많은 예산과 인원을 동원하여『조선반도사』를 편찬할 때 가장 중점을 둔 부문은 단군에 관한 기록을 없애고, 한·일 두 나라가 같은 조상이라는 동조동근론의 구축, 그리고 조선인의 열등성과 일본인의 우수성을 역설하여 일제의 조선 지배를 합리화시키는 것이었다.

5) 이병도, 「나의 30대」, 『폴뭇간의 쇠망치』, 35~36쪽, 휘문출판사, 1972.

6) 박성수, 「아직도 역사학계에 ‘친일사학자 이병도’가 너무 많다」, 『한겨레』, 2015년 9월 18일치.

이병도는 1925년 8월 조선사편수회 수사관보(修史官補)에 임명되었다. 1927년 5월 수사관보를 그만두고 촉탁을 맡아 1938년 6월경까지 활동했다(일제강점기 때 그의 집안에서 세운 부친 비문에는 수사관(修史官)으로 나오니 촉탁에 불과했다는 이 주장은 의혹이 있다) 조선사편수회는 1925년 6월 ‘조선 사료의 수집, 편찬 및 조선사의 편수를 담당’하기 위해 조선사편찬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조선총독부직속기구로, 『조선사(朝鮮史)』 편찬 등을 통해 식민사학을 집대성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조선사편수회 촉탁으로 활동하면서 이마니시와 함께 『조선사』 제1편 「신라통일 이전」, 제2편 「신라통일시대」, 제3편 「고려시대」의 편찬을 담당했다. 수사관보로 재직하던 1926년 1월 조선사편수회 소속 학자들의 공동 연구기관인 조선사학동고회(朝鮮史學同攷會)의 편찬원을 맡았다.⁷⁾

일제강점기 이병도의 학계활동과 친일행위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1930년 8월부터 1939년 10월까지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교수와 조선총독부·조선사편수회 간부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청구학회(靑丘學會) 위원을 지냈다. 청구학회는 조선과 만주를 중심으로 한 극동문화 연구를 표방하며 조직한 학술연구단체로, 최남선·이능화·신석호 등이 참여했으며, 『청구학총(靑丘學叢)』을 발간했다.

1933년 4월부터 1943년까지 중앙불교전문학교 강사로서 조선유학사(朝鮮儒學史)를 강의했다. 1934년 5월 진단학회(震檀學會)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해 학회 창립과 함께 상무위원에 선임되었고, 학회지 『진단학보(震檀學報)』의 편집위원(편집인) 겸 발행인을 맡았다. 1936년 6월에는 진단학회 위원을 맡았다.

1939년 11월 조선총독부의 지원으로 전국 유림단체를 연합하여 총후봉공(統後奉公)을 위한 정신운동에 나서도록 촉구하기 위해 조직된 조선유도연합회(朝鮮儒道聯合會) 평의원에 선임되었다. 1941년 4월 이화여자전문학교 강사를 맡아 1943년까지 사학강좌(史學講座)를 담당했다.⁸⁾

해방 후 역사학계 일각 특히 이병도와 그의 추종자들은 『진단학보』가 일제에 대항하여 민족사관을 지켜온 것처럼 호도하였다. 그런데 실상은 전혀 달랐다.

조선사가 완간된 1936년 일본인들은 청구학회(靑丘學會)를 조직하고 이병도는 그에 맞장구치는 진단학회를 조직하여 식민지 조선사 연구에 박차를 가했다. 이름만 진단학회지 고조선사를 연구한 논문이 단 한 편도 실리지 않았다.

7) 『친일인명사전 2』, 876쪽.

8) 앞의 책, 876~877쪽.

그런데도 진단학회는 해방 후 다시 살아나 한국사연구의 총본산이 되었으니 이병도는 이중삼중으로 배신한 것이다. 그 때문에 한국사는 일제식민사학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일본사의 틀 속에 갇히게 된 것이다.

일제의 조선병합의 궁극적인 목적인 이 지구상에서 조선인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 즉 소멸시키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우리 역사가 광복된 것으로 착각하였다. 이병도의『국사대관』이 나온 것은 광복 후의 일이지만 하야시 다이수케(林泰輔)의『조선사』를 표절했다는 소문이 자자했다.⁹⁾

3. 해방 후 한때 ‘문제제기’ 됐으나 승승장구

해방 후 이병도는 승승장구했다. 해방 직후에 창설된 조선학술원의 역사철학부 학부장을 맡은데 이어 진단학회를 부활시켜 상임위원을 맡고, 경성대학 법문학부 조선사 교수, 1946년 학제 개편에 따라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교수로 발령받아 1961년 정년퇴직할 때까지 재직했다.

그의 행로가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딱 한번 ‘사건’이 있었다. 1948년 8월 진단학회에서 친일파 제명론이 제기되었으나 일회성으로 그치고 말았다.

진단학회와 그 중심인물이던 이병도의 처지는 그렇게 순탄한 것 만은 아니었다. 민족주의 성향의 인사와 그렇지 않은 인사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것이다. 그 것이 이른바 진단학회에서의 친일파 제명운동 사건이었다. 일제말기부터 손진태와 더불어 소위 ‘신민족주의사관’을 모색해오던 조운제가 해방 후 친일파 제명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병도는 새로 재건된 진단학회의 위원장을 맡지 못하고, 송석하와 조운제가 위원장과 총무를 맡게 되었는데, 송석하가 곧 타계하자 이상백이 그 뒤를 잇게 되었다.¹⁰⁾

1950년 6·25한국전쟁은 친일파들에게는 일종의 행운으로 작용했다. 과거 친일행위보다 반공이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이병도 역시 이런 기류에서 순탄하게 출세의 길을 걷는다.

해방 후 잠시 위축되었던 이병도는 6·25전란 중에 민족주의자와 좌익인사들이 대거 월북하거나 납북되고, 극심한 반공주의 정책 하에서 친일파문제가

9) 박성수, 「이병도와 일제식민사학」, 『광복70주년기념 일제 식민사관 극복 학술대회』 발표논문, 29쪽, 2015년 9월 16일.

10) 한영우, 「이병도」,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하)』, 257쪽, 창작과비평사, 1994.

조용해지면서 학계의 최고 원로로서 그 위상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1954년에 그는 진단학회의 이사장으로 다시 취임하여 1989년에 타계할 때까지 35년간 실질적으로 진단학회를 이끌어갔다.

6·25 이후 이병도의 활동영역은 더욱 넓어져서 학내에서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장(1954)을, 학회에서는 학술원 부원장(1954)을 맡았으며, 1960년의 4·19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허정(許政) 과도정권이 들어서자 4개월간 문교부장관에 취임하기도 하였다.(1960. 4), 그리고 이해 학술원 원장에 올라 20여 년간 학술원을 이끌었다. 그가 일시적이지만 관계로 나간 것은 허정과의 보성전문 동창관계가 인연이 된 것으로 보인다.¹¹⁾

이병도는 1960년 7월 장면 정부의 수립으로 과도정부의 문교부장관을 마치고 (같은 기간 국사편찬위원장 겸임) 대한민국의학술원 회장, 서울대학교대학원 원장, 12월에는 중앙교육위원회 의장에 선임되었다. 그리고 1961년 4월부터 국민대학교 학장을 맡았다. 이때 박정희가 주동한 5·16군사쿠데타가 일어났다. 이병도는 군사정부의 기관지『최고회의의보』창간호에「5·16군사혁명의 역사적 의의」라는 글을 기고하여 쿠데타를 합리화시키는데 기여했다.

4월혁명의 뒤를 이어 민족사의 새로운 발전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민주당 정권은 너무도 무력하고 무정견하고 또 전 정권시대 관료층의 독선과 부패를 그대로 답습하였다. 사회의 궁핍과 혼란은 한층 더 하여가고 국가의 위신은 실추되며 공산괴뢰의 간접침략은 치열하여 이 나라 이 겨레의 앞길이 어느 지경에 갈지 모르는 막다른 골목에까지 도달하였던 것이다. 지난 5월 16일 국군장병들에 의하여 수행된 군사혁명은, 이러한 조국의 위기를 구출하기 위하여 할 수 없이 일어난 것이었다. 이 길만이 4월혁명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요, 또한 공산침략 하에서 귀중한 신명을 바쳐 조국을 수호한 수많은 젊은 장병들의 영령에 보답하는 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¹²⁾

이병도는 이같은 공으로인지 1962년 8월 군사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비롯해 5·16민족상과 학술원상, 인촌문화상 등을 잇따라 수상하고, 1966년부터 5·16민족상 심사위원회 고문이사, 1970년에는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 이사(1982년 부터는 이사장), 국토통일원 고문(1970년), 1980년부터 전두환정권에서 8년간 국정자문위원 등을 맡았다.

4. 국정농단의 김창룡 비문 쓰다

11) 앞과 같음.

12) 이병도, 「5·16군사혁명의 역사적 의의」, 『최고회의의보(창간호)』, 14~15쪽, 국가재건최고회의, 1961.

이병도의 행적중에는 역사학자, 그것도 ‘실증사학자’로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적지않다. 하나는「고 김창룡 중장 묘갈」을 쓴 것이다. 김창룡은 이승만 정권기 국정과 군대일(군정)을 농단하다 군인들에게 암살당한 인물이다. 그는 일본 관동군 헌병 출신으로 해방 후 북한에서 민족반역자로 몰려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탈출하여 월남, 조선경비대에 들어갔다.

군부내의 남로당 조직을 소탕하는 데 공을 세워 이승만의 신임을 받아 육군 특무대장으로 영전한 그는 ‘뉴델리밀담설’, ‘동해안 반란사건’ 등 많은 사건을 조작하고 군통수계통을 무시하는 등 권력을 남용하다가 1956년 허태영 대령 등에 의해 암살당했다.

고 김창룡 중장 묘갈

조국 치안의 중책을 띠고 반역분자 적발에 귀재의 영명을 날리던 고 육군특무부대장 김창룡 중장은 4289년(1956년 - 필자 주) 1월 30일 출근 도중에 돌연 괴한의 저격을 입어 불행히도 순직하였다. 이 참변을 듣고 뉘 아니 놀래고 슬어 하랴. 아! 이런 변이 있을까. 나라의 큰 손실이구나 함이 이구동성의 외침이었다. 그는 본시 영흥 출생으로 80년(1947년)에 육사를 마치고 그 후 육군본부 정보국 방첩과장에 취임하여 이래 누차 숙군을 단행하여 군의 육성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특히 동란 중에는 군검경합동수사본부장으로 맹활동을 개시하여 간첩오를 부역자 기타를 검거 처단함이 근 2만5천 명 전시 방첩의 특수 임무를 달성하였다. 84년(1951년) 육군특무부대장에 부임하여서는 더욱 헌신적 노력과 탁월한 지휘로써 국가 및 군사 안전 보장에 기여하였다. 그 중요한 적발만으로도 85년(1952년) 대통령 암살 음모의 김시현 사건 87년(1954년) 남도부 등의 대남 유격대 사건 88년(1955년) 대통령 암살 음모자 김재호 일당을 미연에 일망타진한 그것이다. 그는 이렇듯 나라에 유공하였다. 그 사람됨이 총명하고 부지런하고 또 불타는 조국애와 책임감은 공사를 엄별하여 직무에 진수하더니 급기야 그 직무에 죽고 말았다.

아- 그는 죽었으나 그 흘린 피는 전투에 흘린 그 이상의 고귀한 피였고 그 혼은 기리 호국의 신이 될 것이다. 그의 생년은 단기 4253년 11월 23일. 향년은 37세. 순직과 동시에 육군 중장에 승진되었다.

단기 4289년 2월 3일 입.

문학박사 이병도 지음.

육군참모총장 육군대장 정일권.¹³⁾

13) 정지환, 『대한민국 다큐멘터리』, 31쪽, 인물과사상사, 2004.

5. 이완용 관뚜껑 소각한 실증사학자

또 하나 ‘실증학자의 비실증적인’ 사건은 이완용의 관뚜껑 소각사건이다. 이완용은 새삼 소개가 필요없는 매국노 제1호로 찍힌 인물이다. 이병도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이병도는 실증학자의 대부로 알려진 역사학자다. 실증(實證)할 수 없다면 정사(正史)로 기록하지 말라는 사관(史觀)을 견지했다. 물론 그의 입장은 일제 강점기 식민사관의 영향을 받으면서 수립된 측면이 강하다. 그런데 그렇게도 실증사학을 강조했던 그가 정작 ‘가문의 수치’를 우려해 공사(公私)도 구분하지 못한 채 할아버지뻘인 이완용의 관뚜껑이라는 역사 유물을 태워버렸다는 것이 아닌가.¹⁴⁾

한 언론인은 이병도의 이완용 관뚜껑 소각사건을 추적한 바 있다.

이완용의 후손들은 잃어버린 과거의 권세와 민족의 손가락질을 견디기 어려웠는지 모른다. 지난 1979년 이완용의 증손 이석형 씨는 전북 익산군 낭산면 낭산리 뒷산에 묻혀 있던 이완용과 이항구 부부의 묘를 직접 파헤쳐 화장시켜 버렸다.

이완용의 관뚜껑에는 붉은 페인트로 일본 정부가 부여한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이위대훈위 우봉이공지구(朝鮮總督府 中樞院 副議長 二位大勳位 牛峯李公之柩)"라 써어 있었다. 이완용 부자의 관뚜껑은 주인이 가져갔다가 원광대 박물관에 기증했다고 한다.

그러나 원광대에는 이 관뚜껑이 남아 있지 않다. 당시 원광대 박물관장이었던 박순호 교수는 "소장 직후 이완용의 친척 되는 역사학자 이병도 박사가 내려와 총장님을 설득해 관뚜껑을 가져가 태워버렸다"고 밝혔다.¹⁵⁾ (이항구 부부는 이완용 아들·며느리다. 필자)

6. 사육신 명단 바꿔치기

이병도의 또 한 가지 ‘일탈’된 행적은 ‘상왕복위 기도사건’의 사육신에서 유응부 대신 김문기로 대체하려한 일이다. 유신 말기인 1977년 9월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사육신 유응부를 김문기로 바꾸기를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한다.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은 이선근·이병도·신석호·백낙준·유홍렬·조기준·한우근·전해종·김철준·고병익·최영희·김도연·이기백·이광린·김월

14) 앞의 책, 38쪽.

15) 『시사저널』, 1992년 8월 27일치.

룡이다.

이들은 해방 후 한국 사학계와 동양사학계를 주도했던 인물들이었다. 이런 인물들이 만장일치로 “사육신은 유응부가 아니라 김문기다.”라는 결의를 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배경이 있었다. 당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금녕 김씨였는데, 그가 이병도를 만나 유응부 대신 자신의 선조인 김문기를 사육신에 넣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한국 국사학계의 태두(?)이자 고등문헌 비판의 대가(?)였던 이병도는 유신 중앙정보부장에게 “제가 하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사육신 바꿔치기 공작에 들어갔다. 일본인 스승들에게 배웠던 역사 바꿔치기 수법이 그대로 동원되었다.¹⁶⁾

7. ‘민족’과는 먼 식민지 역사관

이병도는 일제강점기 민족주의사학이나 사회경제사 쪽에는 담을 쌓고 살았다. 수십 편의 논문을『사학잡지』,『청구학총』,『진단학보』등에 발표했으나 ‘민족문제’ 보다는 무난한 고대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일제 때부터 식민사관을 주장하던 일인 학자들의 영향을 받으며 민족사회와 민족저항에 아무런 관심을 표명하지 않은 채 수십 년간 일본인 학자와 학술경쟁을 하면서 학문에만 정진해온 이병도…”¹⁷⁾

이병도는 조선사를 철저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일본관학자들의 황국사관 논리와 판박이다.

근조선(近朝鮮)의 모든 기구와 조직이 중앙집권적인 양반중심적인 점은 고려조보다도 더 심한 편이었고, 특히 불교 중심의 문화가 유교 중심으로 변한 것은 근조선의 성격을 가장 크게 특징지은 것이라고 하겠다.…유교사상에는 물론 취할 점도 있지만…비난할 점도 적지 않다. 너무도 명분적인, 봉건적인, 사대적인, 상고적(尙古的)인, 허례형식적(虛禮形式的)인, 중농적(重農的)인 주의(主義)와, 숭문천무(崇文賤武)·남존여비·관존민비의 사상, 기타 차별·편파·배타적인 점이 많다. 유교의 이러한 점이 원래 정체적이지요, 인습적이지요, 또 편파적인 반도(半島) 국민에게 일층의 박차를 가한 것이라고 나는 본다.¹⁸⁾

이병도는 저서『성기집(成己集)』에서 “역사왜곡은 인생을 왜곡하는 일”이라 적시하였다. 일본의 역사왜곡을 나무라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그의 대표적인

16) 이덕일, 『우리 안의 식민사관』, 11쪽, 만권당, 2014.

17) 김이수, 앞의 책, 196쪽.

18) 이병도, 『국사와 지도이념』, 40~41쪽, 일조각, 1956.

역사왜곡의 사례로 꼽히는 대목은 한사군의 위치 비정(比定)이다. 이와 관련 따거운 질책이 따른다.

이박사는 한사군의 강역을 비정함에 있어 치명적인 선입관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반민족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선입관이란 한국의 기본적 역사강역을 현 한반도로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우리가 애창하는 “3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는 말 속에는 조국강산을 사랑하고 아끼는 애뜻한 감정이 서려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사학적인 측면에서 논할 때 3천리 반도는 조국사의 위축을 표상하는 거금 1,000년 이래에 형성된 원망스럽기 짝이 없는 조국 강역에 대한 대명사인 것이다.¹⁹⁾

이병도의 원전(原典) 해독 능력과 관련해서도 매서운 비판이 있었다.

이병도 박사의 원전 해독 능력도 어로불변(魚魯不辨: 魚자와 魯자를 분변하지 못하는 무식함)의 이론자들보다 그다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 여겨진다. 과거 (1956)에 우리나라 고전인『삼국유사』를 역주(譯註)하면서 오역(誤譯)을 무려 4백 곳이나 낸 일이 있으니, 이 정도의 실력과 노쇠한 정력으로써 어찌 필자가 인증한『조선왕조 실록』의 방대한 사료(史料)를 세밀히 고증 검토할 수가 있겠는가. 게다가 그는 자신의 낡은 권위주의 때문에 사육신 오판 왜곡의 책임을 조금도 느끼지 않고 도리어 식비수과(飾非遂過: 자신의 잘못을 감싸고 나쁜 일을 해 나감)의 중대한 과오를 다시 범함으로써 역사 왜곡을 감행한 장본인이란 세인(世人)의 비평을 영원히 면하지 못할 것이다.²⁰⁾

19) 임승국, 『사림(史林①)』, 7~8쪽, 한국정사학회, 1986.

20) 이재호, 『한국사의 비정(批正)』, 398쪽, 우석, 1985.